

0917(토) 아모스 1-5장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?

아모스는 남 유다의 부유한 사업가 출신입니다(1:1, 7:14)*.
선지자가 아님에도 갑자기 북 왕국에 파견된 것은
북 왕국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.
또한 경제적으로 왕실에 예속되었던 직업 선지자들과 달리
아모스는 말씀을 소신껏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(7:10-17).

*목자(노케드/보케르): 크고 작은 짐승의 큰 떼를 소유한 자
*뽕나무: 돌무화과 나무, 짐승의 사료로 사용(사료 농장 소유자로 추정)

당시 북 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.
앗수르와 이집트의 쇠퇴로 40년 간 평화가 지속되었고,
시리아의 쇠퇴로 <왕의 대로>가 지나는 요단 건너편을 점령하면서
상인들에게 거둬들인 통행세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
주변국의 상황에 기대어 얻은 부와 평안이었습니다(6:4-6).

그럼에도 정권은 곧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습니다.
<부유/평안=의로움>이라는 번영의 복음이 나라를 지배했고
여로보암을 메시아로, 성소의 주인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(7:13).
상류층들은 사회적 악을 행하면서도(2:6, 3:9-10, 4:1-3, 8:5-6)
자신만만했고 영적으로도 교만했습니다(6:1).

이방 제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(5:26),
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도 윤리적 책임은 버렸습니다(2:6-8).
예식을 행하되 예배의 의미도, 거룩한 고민도 없었습니다(5:21-23).
예배와 성소는 도리어 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(4:4-5, 5:5).
벤엘(하나님의 집)이 벤아웬(죄의 집)이 된 것입니다(호4:15, 10:5 참고).

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(4:12).
하나님을 찾고,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돌아켜야 합니다.
오직 정의와 공의를 쉼 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(5:24).
(5:4, 6, 14 / 4:6, 8, 7, 10, 11, 5장)

나는 거짓 자신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? (false sense of confidence, 2:6-8)
정기적인 예배와 헌신, 매사의 행동으로 <잘 살고 있다> 확신합니까?
내 마음과 삶의 태도도 <잘 살고 있다> 확신할 수 있습니까?